

“4차원 소녀 NO… 인어공주로 불러줘요”

아시아 무대 제패한 수영 얼짱 정 다 래 금의환향

“다음 시상대에서는 물지 않을래요.”

아시아 무대를 제패한 ‘인어공주’ 정다래(20·전남수영연맹)가 고향 여수에서 세계를 향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정다래는 지난달 열린 광저우아시안게임 여자 평영 200m 결승에서 가장 먼저 터치 페드를 찍으며 ‘깜짝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그리고 금메달을 거머쥔 수영 실력에 눈에 띠는 외모와 똑똑 뛰는 언행이 연일 화제가 되면서 유명세를 탔다.

여수에서 마무리 훈련을 하고 있는 정다래는 자신의 스무번째 생일인 2일 기자들과 만나 “(수영 선수다운) 어깨를 보고 아시는지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예전처럼 친구들하고 마음놓고 장난은 치지 못하고 있다”며 “하지만 금메달을 딴 이후 지원도 많이 해주시고 관심도 가져주셔서 좋은 점도 많다.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지역 수영이 더

욱 발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여수 구봉초 1학년 때 수영을 시작한 정다래는 이후 문수중-부영여고를 거쳐 선수 생활을 해왔다. 광주대표로 뛰고 있는 김고은·달은 쌍둥이 수영 자매도 부여여고 출신이지만 여수에는 50m 수영장도 갖춰져 있지 않다.

경기장 사정으로 광양으로 건너가 연습을 하기도 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인어공주’의 꿈을 키워왔던 만큼 이번 메달은 정다래에게 더욱 의미가 있다.

정다래는 “도와주신 분들도 많고 그만큼 더욱 열심히 해야 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돌아왔다. 최종 목표인 런던 올림픽을 향해 더욱 힘을 내고 싶다”며 “다음에 우승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물지 않고 싶다. 이번에는 너무 풍곡을 했다”고 웃었다.

런던 올림픽에 앞서 정다래는 내년 7월 열리는

고향 여수에 훈련캠프

이젠 런던올림픽 도전

다음 시상대선 안운다

상하이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테스트를 받게 된다. 아직 영볍이 완성되지 않은 만큼 올림픽을 위한 자세 교정과 함께 ‘연습용 선수’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자신과의 싸움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정다래를 지도하고 있는 안종택 국가대표팀 코치는 “나라는 체계적으로 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꾸준하고 쉽게 무너지지 않는 선수다. 하지만 연습 때는 세계적인 수준인데 시합에 나가면 너무 긴장해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28일 여수로 돌아온 정다래는 몸살기운 때문에 컨디션이 많이 떨어진 상태. 유명세를 타면서 방송 출연과 CF 출연 요청이 쇄도하고 있지만 단단히 마무리 훈련을 하면서 컨디션을 조절하고 있다.

그러나 정다래만의 특별之处는 여전하다.

한 언론사 기사에 언급된 ‘자유형 도전’ 여부를 묻는 질문에 “영볍이나 열심히 해야한다”며 웃음을 터트린 정다래는 앞으로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는 “아직 짚으니까 놀고 싶어요. 저 이제 스무 살이에요”라는 신세대다운 답변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4차원 소녀’보다 ‘인어공주’라는 별명을 좋아하는 정다래는 자신을 “수영선수 정다래로 기억해 달라”고 강조한다.

정다래는 “연예인을 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을 받으면 기분이 좋지 않다. 부족한 점이 많으니까 더 노력해서 한국신기록, 그리고 세계무대에 도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여수=김여울·김창화 기자 wool@kwangju.co.kr



전·지·훈·련

KIA 등 8개 구단

내년 1월 해외로

프로야구 8개 구단이 2011시즌을 위한 전지훈련 준비 작업에 한창이다.

8개 구단 대부분이 12월이 넘도록 마무리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등 올해는 ‘강도 높은 훈련’이 대세다.

디펜딩 월드컵에서 4강 탈락으로 추락한 KIA는 오는 24일까지 일본 미야자키에서 마무리 캠프를 갖는다.

1월 10일에는 전지훈련이 시작된다. 투·포수조와 안치홍을 비롯한 재활조 등이 꼽으로 먼저 출발한다. 그리고 2월에는 미야자키에서 야수조들과 합류해 명예회복을 노리게 된다.

2010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SK는 12월 중순 귀국해 내년 1월 10일을 전후해 오키나와로 다시 떠난다. 앞서 15일부터는 오키나와에 재활 캠프가 마련된다.

준우승팀 삼성 역시 내년 1월 9일부터 3월까지 2차례에 걸쳐 광주 오키나와에서 진행되는 전지훈련 계획을 마련했다.

LG 역시 오키나와에 합류한다. 1월 중순 사이판 훈련을 시작하는 LG는 오키나와에서 최종적으로 전력을 가다듬는다.

두산은 미야자키를 기회의 땅으로 삼았다. 미야자키에서 마무리 훈련 중인 두산은 이달 중순 한국으로 들어왔다 1월 다시 캠프로 돌아간다.

사이판에서 먼저 물을 풀게 되는 롯데는 이후 가고시마에서 훈련 속도를 낼 예정이다.

한화와 네센은 미국을 캠프지로 선택했다. 한화는 하와이에 캠프를 마련하고 네센은 미국 플로리다에서 2011시즌을 준비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설원 질주

2일(한국시간) 캐나다의 알버타 레이크루이스에서 열린 여자 월드컵 알파인 스키에서 이탈리아의 니니엘라 메리게티가 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광래호 13일 소집… 아시안컵 담금질

이문재 공백… J-리그 활약 골키퍼 김진현 호출

조광래 감독(56)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애초 창원에서 제주 서귀포로 장소를 바꿔 오는 13일부터 아시안컵을 대비한 담금질에 들어간다.

조 감독은 2일 “창원축구센터에서 훈련하려 했지만 그라운드 사정이 좋지 않아 서귀포 쪽으로 장소를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감독은 시즌이 끝난 K-리거와 일본 J-리거 등 아시안컵 예비 명단에 든 24명 정도를 이번 훈련에 불러들일 계획이다. 소집 훈련 참가 명단은 K-리그 챔피언결정전이 끝난 뒤 6일 발표한다.

대한축구협회는 내년 1월7일 카타르에서 개막하는 2011 아시안컵 참가선수 예비 명단을 7

일까지 제출하고 개막 열흘 전인 오는 28일까지 최종명단 23명을 확정해야 한다.

조 감독은 이번 소집 훈련에 J-리그에서 활약하는 골키퍼 김진현(28)을 호출했다. 김진현은 이문재(37·수원)의 국가대표팀 은퇴로 공백이 생긴 골키퍼 한 자리를 차지할 선수로 일찌감치 손꼽혀왔다.

190cm의 장신인 김진현은 2007년 캐나다에서 열린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때 조별리그 3경기에 모두 주전으로 나섰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축구대표팀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한 기대주다. 2008년 12월 당시 일본 2부 리그였던 세레소 오사카에 입단해 프로 무

대에 뛰어들었고, 지난해 팀이 치른 51경기 가운데 50경기에 출전하며 주축 선수로 자리매김했다.

올해 팀이 1부 리그로 승격한 뒤로도 주전으로 뛰다 8월 초 훈련 도중 왼쪽 무릎 반월판을 다쳐 재활하다 지난달 중순 그라운드에 복귀했다.

이번 소집 훈련 때 골키퍼는 김진현과 주전인 정성룡(25·성남)이 참가한다. 김영광(27·울산)은 최근 시즌을 마치고 무릎 후방 십자인대 수술을 받았고, 오는 11일 결혼까지 앞둬 이번 훈련에는 합류하지 못한다.

조 감독은 서귀포에서 훈련을 이어가다 오는 26일이나 27일 쿠웨이트 또는 아랍에미리트(UAE)로 건너가 카타르로 들어가기 전에 앞서 적응 훈련을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연봉 20억원

이승엽 오릭스와 1년 계약

일본프로야구 요미우리 자이언츠에서 나온 이승엽(34)이 퍼시픽 리그 오릭스 버펄로스로 이적했다.

오릭스 구단은 2일 이승엽과 1년간 계약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연봉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일본 언론은 이승엽이 올해 받은 연봉(6억 엔)의 4분의 1인 1억5000만엔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승엽은 성적에 따라 보너스 옵션을 따로 받는다.

한때 이승엽의 연봉이 대폭 낙차(8000만엔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으나 오릭스는 거둔된 액수의 2배에 가까운 금액을 책정, 이승엽의 자주집을 세워줬고 영입에 성공했다.

이승엽은 “최근 몇 년간 생각만큼 성적을 남기지 못해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그러나 심기일전해 새로운 환경에서 내 본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다.

2004년 지바 롯데 유니폼을 입고 일본 무대를 밟은 이승엽은 이로써 6년 만에 친정 퍼시픽리그에 복귀했다. 올해 지바 롯데와 3년간 계약한 김태균(28)과 한국산 거포끼리 화력 대결이 내년에는 야구팬들의 이목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연합뉴스

포상금 8000만원

AG 2관왕 ‘소년 신궁’ 김우진

2010년 광주 아시안게임에서 세계기록을 세우며 2관왕에 오른 고교궁사 김우진(18·충북체고)이 돈방석에 앉는다.

대한양궁협회는 대회에서 선전한 남녀 양궁 국가대표 선수와 코치진을 격려하기 위해 선수단 12명에게 포상금 5억4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김우진은 남자 개인전과 단체전 금메달을 목에 걸어 우승 포상금으로 각각 4000만원과 3000만원 등 7000만원을 받게 된다. 그는 협회 포상금과는 별도로 광주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가 주는 세계 기록 상금으로 미화 1만달러(약 1153만원)도 대회가 끝날 때 받았다.

김우진은 지난달 20일 광주 아오타 양궁장에서 열린 예선에서 90m, 70m, 50m, 30m 등 4개 거리 합계 1387점을 세계신기록을 세웠다. 협회는 김우진의 세계기록 수립은 따로 포상하지 않고 선수단 전체의 포상금 규모를 결정할 때 인상 요인으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Shin Yang Park Hotel Dinner Show

2010. 12. 16(목) 19:00 신양파크호텔 1층 그랜드 볼룸

Sunflower Dinner Show ₩150,000원 (VAT 포함)

*** 15세 미만은 입장이 불가능 합니다.**

|주최및주관| (주)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예약및문의 T. 062) 228-4711~2

Christmas family buffet

▲ 12월 24일 | 18:00~21:00

▲ 12월 25일 | 12:00~15:00

대 인 | 30000 (VAT 포함)

소 인 | 20000